

# 2009 개정교육과정과 고등 『한국사』교과서의 麗蒙交流史 서술 분석\*

전영준\*\*

- I. 머리말
- II. 2009 개정교육과정과 고려시대 단원의 서술 방향
  - 1. 2009 개정교육과정 분석
  - 2. 각급학교 역사(한국사)교과서의 고려시대 단원 서술
- III.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고려-몽골 관련 서술
  - 1. 출판사별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고려 단원 비중
  - 2.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麗-蒙 교류 서술 분석
- IV. 맺음말

## 국문요약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정교과서의 서술은 기존의 민족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 가져온 결과임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는 전 시기에 걸쳐 주변의 송-거란-여진-원-일본 등 국가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발전하였음을 서술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아울러 본 연구는 지난 2016년 3월 26일(토)에 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한국외대 몽골연구센터, 한국몽골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몽골 교류 740주년 기념 제37회 한·몽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고를 집고 보태어 작성되었다.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것은 다문화 및 글로벌 시민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이면서도 2007년의 개정7차교육과정의 ‘세계사 속의 한국사’라는 맥락으로 잘 반영되어 있으며, 2009 개정교육과정(총론)과 2011 개정교육과정(각론) 교육과정에서도 그 기조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교과서 집필지침에서는 여전히 민족주의적인 서술을 강요하여 “우수한 송의 문화와 저급한 북방민족의 문화”라는 등식을 무의식중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육의 목표를 파악한 서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서술의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과서의 분량이 다소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미 전개되었던 한국사의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집필지침의 수정 없이 고착화된 역사교육을 주도하는 것은 고려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주변의 여러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형성되었다는 전반적인 이해에 장애가 되고 있음은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역사교육, 2009 개정교육과정, 서술의 중립성, 여몽교류사,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 I. 머리말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역사교육은 한국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찾아내고 이를 새롭게 해석하여 한국의 정체성을 조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국사 교육에서 항상 강조되어 왔던 민족·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기존 시각의 재해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기조는 2009 개정교육과정(총론)과 2011 개정교육과정(각론)에서도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의 교과서 집필과정에는 기존의 민족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인 틀을 계속적으로 강요하는 집필지침 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의 대외전쟁 또는 대외관계 서술의 경우, 외세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라는 일정한 틀이 강요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교육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 간의 관련성 및 문화적 상호

작용을 다룸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sup>1)</sup>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정교과서의 서술은 기존의 민족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 가져온 결과임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는 전 시기에 걸쳐 주변의 송-거란-여진-원-일본 등 국가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발전하였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다문화 및 글로벌 시민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이면서도 2007년의 개정7차교육과정의 ‘세계사 속의 한국사’라는 맥락으로 잘 반영되어 있으며,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그 기초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교과서 집필지침에서는 여전히 민족주의적인 서술을 강요하여 “우수한 송의 문화와 저급한 북방민족의 문화”라는 등식을 무의식중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육의 목표를 파악한 서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서술의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집필지침의 수정 없이 고착화된 역사교육을 주도하는 것은 고려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주변의 여러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형성되었다는 이해에 장애가 되고 있음은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8종을 대상으로 고려와 몽골 및 원의 교류 상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특정 시기라는 제한점이 있지만 고려의 대외관계는 건국초기부터 다원성과 개방성에 기초하여 전개되었고, 상호간의 대립과 교류

---

1) 현재의 교육과정 상에서는 역사교육의 목표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세계인으로서의 성장을 설정하고 있다. 때문에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중심에 두는 서술이 늘어나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러다 보니 외세와의 항쟁이나 전쟁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서술 보다는 상호 문화적 교류를 중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역사교과서에서 서술하는 내용 또한 이러한 경향을 지향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근대시기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문화적 변용에 대해서는 소략하거나 아예 서술되지 않는 교과서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고대로부터 성장하여 온 국가의 발전상과 정체성의 이해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즉, 전쟁이나 외세와의 항쟁으로 발생하는 문화유산 등의 피해를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와 대외교류를 포함하는 전체사에 대한 이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주요 논점으로 삼아 분석하고자 한다.

## II. 2009 개정교육과정<sup>2)</sup>과 고려시대 단원의 서술 방향

### 1. 2009 개정교육과정 분석

교과서는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고도화한 교수-학습활동의 기본 도서를 말한다. 교과서가 다른 학술 논문이나 대중 도서 등과 다른 점은 바로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충실히 입각하여 제작된다는 점이다.<sup>3)</sup> 즉,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 활동을 구체화시켜 놓은 기본적인 자료집이다.<sup>4)</sup> 따라서 교과서는 기본적인 지식 제공과 함께 문제점을 시사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점을 탐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탐구 자료까지 제시하는 등 풍부한 내용을 구조적으로 갖추어야 한다.<sup>5)</sup>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학습자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개정7차교육과정) 발표 후 2년 만에 새로운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발표됨으로써 교육과정이 학교에 적용되기도 전에 개정되는 수시 개정의 폐해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수시개정 체제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을 고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과정이 변화에 따른 교육 체계와 교과서 개편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교사와 학생은 개정된 교육과정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2) 2009 개정교육과정은 2010년과 2011년에 부분적으로 보완되어 2011 부분개정교육과정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각기 총론과 각론이라는 개념적 이해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통일하여 서술 하겠다.

3)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4) 송춘영,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1999, 173쪽.

5) 우인수, 「제7차 교육과정 高等學校 國史教科書의 내용분석」, 『역사교육』 82, 2002, 256쪽.

한편,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6)</sup>로 2007년 개정교육과정과 동일하지만, 세부 목표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따.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시민의 범위가 한정적이지만,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따.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하여 민주 시민의 범위를 세계 시민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추구하는 인간상 변화는 진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공동체의 범위를 세계로 확장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것은 다원화·세계화가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역사과목의 독립과 국사만의 독자체제가 아닌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여 중학교 『역사』교과서로 單卷化를 이룬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개정방향은 “학생의 지나친 학습 부담을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인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고,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sup>7)</sup>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변화로 첫째,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2007년 개정교육과정까지 유지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체제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1학년(초등학교 1)에서 9학년(중학교 3)까지 공통 교육과정으로, 10학년(고등학교 1)에서부터 12학년(고등학교 3)까지는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칭과 범위가 변경되었다. 이전의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9학년까지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6) 교육인적자원부, 「2007 개정교육과정의 성격」,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교육과정의 성격」, 2009; 「2011 개정교육과정의 성격」, 2011, 교육과학기술부.

7)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 개정교육과정」, 2009. 12. 17.

국민공동기본교육과정을 10학년까지로 정하게 된다면,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완료할 수 없다는 것과, 10학년까지의 공통과정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논란을 종식시켰다.

둘째, 학년군 및 교과군의 도입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나누고 7개의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따라 기준수업시수를 제시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1~3학년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8개의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따라 총 수업시수와 총 이수단위를 제시하였다.<sup>8)</sup>

셋째, 교과별 수업시수를 20%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와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기존의 10~13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편성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교과군별 기준 시수·이수 단위를 제공하여 단위 학교별 상황에 따라 자율권을 부여하고 집중이수제를 활성화시켜 수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토론 및 실험 중심으로 수업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sup>9)</sup> 집중이수제는 학교별 학업 성취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취도가 우수한 교과의 수업시수를 줄이고 성취도가 부족한 교과군에 대해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학 입시가 중요시 되는 현실에서 주요 교과로 인식되는 국어·영어·수학의 수업증가로 인한 다른 과목의 수업시수 하향 조정이나, 비주류 과목을 저학년에 배치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필요한 과목을 고학년에 집중 이수하는 편법적 운영이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집중이수제를 통해 학업량 감소 효과와 토론, 실험 중심의 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넷째,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내용간 중복이 있거나 체험 중심 요소가 약하다는 비판과 그 실제적인 운영 모습이 내실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점”<sup>10)</sup>을 감안하여 2009년 개정

8) 2007년 개정교육과정과 비교하여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는 연간 총 수업 시간이 126시간이 감소, 중학교는 이전과 동일했으며, 고등학교는 총 이수 단위가 6단위 감소(210에서 204)하였다.

9)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 개정교육과정」, 2009. 12. 17.

10) 김승익, 「2009 개정교육과정 무엇이 달라지나」, 2009 개정교육과정 알림마당, 2010. 2.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하였다.

역사과에서는 10학년이 국민공통교육과정에서 선택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10학년 『역사』가 선택과목으로 그 위상이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의 수가 4개로 증가하였는데, 10학년 『역사』와 『한국문화사』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한 과목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로 『한국문화사』가 폐지되었다. 선택과목이 4개에서 3개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교과목 명칭도 『역사』가 『한국사』로 『세계 역사의 이해』가 『세계사』로 각각 바뀌게 되었다. 각 과목의 기본 이수 단위 수가 5단위로 조정됨에 따라 선택과목의 기본 이수 단위로 종전의 6단위 증감에서 5단위 증감으로 축소되었다. 단원구성에 있어서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과 동일하였다.

〈표 1〉 2007·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역사 과목 편제

구분	8학년(중2)	8학년(중3)	10학년(고1)	11학년(고2)	12학년(고3)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역사(상)』 【국사2, 세계사1】 전근대사	『역사(하)』 【국사1, 세계사1】 근현대사	『역사』 (6단위)	『한국문화사』 『세계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6단위)	
2009 개정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역사(1)』 【국사2, 세계사1】 전근대사	『역사(2)』 【국사1, 세계사1】 근현대사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5단위)		

※ 【 】의 내용은 주당 수업시수임. 아울러 8학년(중2), 9학년(중3)과 같은 표현은 개정7차교육과정에서 편제되었던 표현이다. 현재는 역사 과목의 편제를 중1·2·3 또는 중1·2, 중1·3, 중2·3에 걸쳐 학교 별로 다양하게 운영 중이나, 통상적으로 중2·3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2010년의 부분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역사과의 목표는 유지하고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지적된 중학교 『역사(2)』와 고등학교 『한국사』의 단원 편제 수정이 이루어졌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입각하여 8~10학년까지 역사의 연계성을 위해 9학년까지는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근현대사를 소략하여 서술하였고, 10학년은 전근대사를 소략하고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10학년이 선택

교육과정으로 변경되어 학습의 연계성을 반영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표 2> 2009년 개정교육과정과 2010년 부분개정교육과정 내용 비교

분야 학년	2009 개정교육과정	2010 부분개정교육과정
9학년	<한국사 영역> ○ 조선사회의 변동 ○ 근대국가 수립 운동 ○ 대한민국의 발전  <세계사 영역> ○ 산업화와 국민국가의 형성 ○ 아시아·아프리카 민족운동과 근대국가 수립 운동 ○ 현대 세계의 전개	<한국사 영역> ○ 조선사회의 변동 ○ 근대국가 수립 운동 ○ <b>민족 운동의 전개</b> ○ 대한민국의 발전  <세계사 영역> ○ 산업화와 국민국가의 형성 ○ 아시아·아프리카 민족운동과 근대국가 수립 운동 ○ 현대 세계의 전개
10학년	<한국사> ○ 우리 역사의 형성과 발전 ○ 조선사회의 변화와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 ○ 동아시아의 변화와 조선의 근대 개혁 운동 ○ 근대 국가 수립운동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 전체주의의 대두와 민족운동의 발전 ○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정세의 변화 ○ 세계화와 우리의 미래	<한국사> ○ <b>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b> ○ <b>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b> ○ 조선 사회의 변화와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 ○ 동아시아의 변화와 조선의 근대 개혁 운동 ○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 <b>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b> ○ 전체주의의 대두와 민족 운동의 발전 ○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위의 <표 2>에서와 같이 8~9학년은 기존의 『역사』 과목을 유지하고 10학년은 『한국사』 과목으로 분리하였다. 중학교 『역사(1)』의 단원편제는 유지하고 중학교 『역사(2)』에서 대단원 ‘민족운동의 전개’를 추가시켜 근현대사 부분을 기존의 3단원에서 4단원으로 확대하였다.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기존의 대단원 ‘우리 역사의 형성과 발전’을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로 수정하고 ‘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대단원을 추가하여 전근대사를 기존 1개 단원에서 3개 단원으로 확대하였다. 근현대사 부분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를 추가하고 ‘세계와 우리의 미래’를 삭제하여 종전의 8개



단원에서 5개 단원으로 축소하였다.

〈표 3〉 2010년 역사과 교육과정 부분 개정에 따른  
교과서 수정보완 사항<sup>11)</sup>

구 분	영역	시안 작성 기준	비 고
중학교 『역사(하)』	근현대사 부분	- 종전 3개 단원 → 4개 단원으로 확대 ※ 일제강점기 관련 단원 신설	‘독도’ 관련 서술 강화
고등학교 『한국사』	전근대사 부분	- 종전 1개 단원 → 3개 단원으로 확대 ※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관련 단원 신설	
	근현대사 부분	- 종전 8개 단원 → 5개 단원으로 축소	‘독도’ 관련 서술 강화

『한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분리되면서 『역사』 과목의 세부 목표가 변경되었다. 이것은 10학년 『한국사』가 분리되면서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 부분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근현대사에 관계된 세부목표를 ‘현대와 가까운 과거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현대 세계와 우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확대한다’<sup>12)</sup>에서 한국사와 세계사가 함께 편성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특성을 살려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대한 통찰력을 기른다.’<sup>13)</sup>로 항목을 수정하였다.

한편, 2011년 부분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은 교과 교육과정 내용 연계와 적정화, 국가·사회적 요구 반영, 고교 선택과목의 재구조화 고등학교 『한국사』의 필수 과목화이다. 여기에서의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배경은 “개방적이고 진취적 역사 인식 제고의 필요.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의 정체성 제고. 역사과 학습 내용 및 분량, 수준의 적정화”였다. 개정방향은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 내용 강화, 필수학습요소 중심 학습량 적정화, 학교급별 중복요소 및 내용 위

11) (사)한국검정교과서 검정자료실, 『역사과 교육과정 부분 개정에 따른 교과서 수정 보완 사항』, 2010. 4. 13.

12)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79호, 『2007 개정교육과정[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38쪽.

13)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0호, 『2009 개정교육과정[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38쪽.

계성 조정”이었다.<sup>14)</sup> 이에 따라 역사과 구체적 목표에 수정이 이루어졌다.<sup>15)</sup> 2009년 개정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와 세계 역사와 문화 현장을 견학하고 체험함으로써 문화 창조의 능력을 함양한다.’는 체험학습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실제로 역사 문화 유적지 또는 박물관을 견학하고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의 역사적 창의력 발달에 기여하고자 했다. 역사교과서에서도 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각 단원별 현장답사 형식의 읽기자료 또는 탐구 활동이 추가되어 있다.

이 과목은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한국사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관시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특히, 정치사와 문화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역사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문화적 창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sup>16)</sup>

위 인용문은 2011년 부분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역사과 목표의 특징 중 일부이다. 중학교 역사의 성격에서 경제사와 사회사를 축소하고 정치사와 문화사를 강조하였다. 이는 교과서 단원편성 및 성취기준<sup>17)</sup>에도 영향을 주었다. 2010년 부분개정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단원의 제목이 변경되고 내용요소를 감축하여 학습량을 줄였다. 이에 따라 재구성된 『역사(1·2)』는 다음과 같다.

14)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교과교육과정개정의 이해」, 2012. 10. 9.

15) 2011 역사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보면 ‘역사교육 강화 방안’에서 의도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역사 내용의 계열성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문기·남한호, 「특집 : 새 역사교과서의 분석과 활용방안 모색; 2009 개정교육과정과 역사 교육, 그리고 이후의 변화」, 『역사교육논집』 47, 역사교육학회, 2012, 17쪽.).

16)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부분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1, 73쪽.

17) 2009 개정교육과정에 비해 중학교 역사의 성취기준이 <한국사 영역>은 50개에서 42개로 <세계사 영역>은 35개에서 27개로 약 20% 감소하였다.

〈표 4〉 2010·2011년 부분 개정교육과정 역사과 내용체계 비교

교과서	년도	2010	2011
8학년 (중 2)		『역사(상)』	『역사(1)』
		<한국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li> <li>○ 삼국의 성립과 발전</li> <li>○ 통일신라와 발해</li> <li>○ <b>고려의 성립과 발전</b></li> <li>○ <b>고려 사회의 변천</b></li> <li>○ <b>조선의 성립과 발전</b></li> </ul> <세계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제국의 형성과 세계종교의 등장</li> <li>○ 다양한 문화권의 형성</li> <li>○ 교류의 확대와 전통사회의 발전</li> </ul>	<한국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li> <li>○ 삼국의 성립과 발전</li> <li>○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li> <li>○ <b>고려의 성립과 변천</b></li> <li>○ <b>조선의 성립과 발전</b></li> <li>○ <b>조선 사회의 변동</b></li> </ul> <세계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제국의 등장</li> <li>○ 지역세계의 형성과 발전</li> <li>○ 전통사회의 발전과 변모</li> </ul>
9학년 (중 3)		『역사(하)』	『역사(2)』
		<한국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사회의 변동</li> <li>○ 근대국가 수립 운동</li> <li>○ 민족 운동의 전개</li> <li>○ 대한민국의 발전</li> </ul> <세계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화와 국민국가의 형성</li> <li>○ 아시아·아프리카 민족운동과 근대국가 수립 운동</li> <li>○ 현대 세계의 전개</li> </ul>	<한국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근대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b></li> <li>○ 민족 운동의 전개</li> <li>○ 대한민국의 발전</li> </ul> <세계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화와 국민국가의 형성</li> <li>○ <b>아시아·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 운동</b></li> <li>○ 현대 세계의 전개</li> </ul>

2010년 부분개정교육과정과 비교하여 2011년 부분개정교육과정의 『한국사』 영역은 10개에서 9개로 감소하고 『세계사』 영역은 6개로 유지하여 『한국사』와 『세계사』의 영역비율을 3:2로 맞추었다. 두 개의 단원으로 나누어 학습했던 고려시대를 2011년 부분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한 단원으로 통합하였다. ‘조선사회의 변동’을 『역사(1)』로 이동시킴으로써 『역사』 교과서 1, 2권을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구분하였다. 근대 이후에는 근대국가 수립운동에 국권 수호 운동을 통합하여 자주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2012년 부분개정의 역사과목은 체육·예술 교과목의 기준수업시수 고정에 따라 국어·영어·수학 교과목의 수업시수가 증가될 경우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선택 과목에 『사회』가 신설되어 기존의 10개였던 일반선택과목이 11개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2012학년도 1학년부턴 고등학교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적용되면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다.<sup>18)</sup>

## 2. 각급학교 역사(한국사)교과서의 고려시대 단원 서술

2011 부분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고려 단원을 내용 체계와 영역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내용체계

	구분	영역		내용요소
중학교 역사(1)	근대 이전	한국사 영역	고려의 성립과 변천	○고려의 후삼국통일과 그 의의 ○통치체제정비와 고려의 대외관계 ○무신정권과 농민·천민의봉기 ○고려의 대몽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 ○고려시대 문화의 특징과 그 변화
고등학교 한국사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과 변천	○고려의 건국과 동아시아의 정세 ○고려의 경제제도와 경제생활 ○고려의 신분제도와 사회모습 ○고려의 사상적 특징 ○고려의 대외관계와 고려사회의 개방성

위에서와 같이 국가에서 제시한 중학교 역사의 내용체계의 대강은 고려시대를 하나의 대단원으로 편성하고 5개의 중단원으로 구성하면서도 세부적인 학습목표를 제시하는 소단원 편성을 제외하여 겉으로는 검정교과서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엄격한 집필기준은 2007년의 7차교육과정과 유사하게 제시함으로써 검정교과서 집필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습한 역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사 사상사 및 대외관계사를 연계

18) 전영준, 「다문화교육 관점에서 현행 중학교 9종 역사교과서 고려시대 단원 분석」, 『대구사학』 112, 대구사학회, 2013.

하여 한국사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도록 정리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독창적이면서도 개방적인 문화를 형성하였음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주체적인 한국인으로서 세계화에 부응하여 인류역사의 전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데 학습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고려시대사의 전개와 통합하여 볼 때 적용될 수 있는 ‘한국사’ 과목의 목표와 부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중학교에서 학습한 역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변동과 문화 성격을 아우르면서 한국사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한다.
  - 나. 오늘날 우리의 삶은 과거 역사의 산물임을 이해하되, 각 시대 우리나라 역사의 전개과정을 세계사의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 다. 우리 역사가 외부세계와 교류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성격을 가진과 동시에 한국사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음을 이해한다.
- 라.(생략)  
 마.(생략)

## 2) 영역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역중학교 과정에 제시된 역사교과서의 학습영역과 내용 성취 기준은 검정교과서 집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 하나의 대단원으로 편성하면서 분량 또한 축소되어 서술상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중학교 단계에서 구성되는 ‘정치사+문화사’에 대한 서술 분량의 축소는 교과서 지면의 여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었고, 교과서는 복잡한 지면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중학교 역사(1)	(4) 고려의 성립과 변천 후삼국 통일과 고려전기의 제도정비, 무신정변 이후 고려후기 사회의 변천을 다룬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고려전기 귀족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파악한다. 고려후기 지배세력의 변화를 이해하고 고려문화의 특징과 그 변화를 살펴본다. ①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정과 태조의 정책을 통해서 고려의 통일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한다. ② 고려전기 정치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귀족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이해하고 대외관계를 전쟁과 교류로 나누어 설명한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무신정권과 농민·천민봉기의 전개과정을 통해서 고려의 지배체제가 동요되고 있음을 이해한다.</li> <li>④ 대몽항쟁의 과정, 원간섭기 권문세족의 성장과 반원사주화의 노력을 이해하고 고려사회의 개혁과정에서 신진사대부가 성장하였음을 파악한다.</li> <li>⑤ 고려시대 문화의 특징과 그 변화를 고려청자, 불교예술, 인쇄술, 역사서 편찬 등을 중심으로 이해한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고등학교 한국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과 변천 고려의 건국과 통치체제 정비과정을 고찰한다. 또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대외교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고려사회의 다원성과 개방성에 대해 파악한다. 시기는 고려의 성립부터 조선 건국 이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li> <li>① 고려의 건국과 발전과정을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와 관련지어 파악한다.</li> <li>② 고려시대의 경제제도와 각종 산업의 모습을 이해한다.</li> <li>③ 신분제도를 바탕으로 친족제도, 혼인, 풍속, 여성의 지위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고려시대의 사회모습을 파악한다.</li> <li>④ 고려시대의 사상적 특징을 유교, 불교, 풍수지리설 등을 중심으로 파악한다.</li> <li>⑤ 이민족과의 대립 외에도 다양한 교류를 통해 고려가 다양성과 개방성을 가지는 사회로 발전하는 상황에 대하여 파악한다.</li> </ul>

위의 성취기준을 적용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경우는 이전의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정치사+사회경제사 중심의 서술에 변화를 주어 2011 부분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정치사+문화사 중심의 교과서 서술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한정하여 실제 출판된 교과서를 분석하면, 서술 중에 사회사와 경제사가 제외되었을 뿐 이전 교과서에 비해 분량 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문화사가 특별히 강조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정치사+문화사 중심의 서술 목표와 달리 상대적으로 문화사 서술이 부족했다. 대단원 시작의 개괄적 설명에서부터 문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집필지침과는 다르게 고려 전·후기에 발달한 문화의 특징 서술에서 대부분의 교과서는 시대 구분을 하지 않은 채 서술하는 경향이 다수였다. 본문 서술에서도 구체적 설명을 생략하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문화재라고 하면서도 이유를 생략한 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할 수 있겠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세계 시민의 자질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문화와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과서의 구성은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집필지침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중학교 단계의 학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내용의 계열성(위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여전히 전근대시기의 시대사에 대한 교과교육이 실행되고 있어서 학습내용의 중복이라는 한계를 보여준다는 아쉬움이 뒤따른다.

최근에 2015 개정교육과정<sup>19)</sup>이 발표되면서 『한국사』의 기초교과 편성이 이루어졌지만, 국어·영어·수학교과처럼 구체적인 교과 이수단위와 진로선택에 대한 논의는 미정인 채로 제시하여 『한국사』 교과를 전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표 5〉 고등학교 보통교과 이수 단위 편성(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b>한국사</b>	<b>한국사</b>		
탐구	사회(역사/도덕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또한 2015 개정교육과정이 학교 급별, 학년별로 적용되는 시점을 고시하였는데, 이 고시와는 달리 2017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의 시행을 예고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점은 2018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다. 때문에 고

19) 교육부 고시 2015-74호 「별책 4」, 163쪽, 2015. 9. 23. 2015 개정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총론 해설」만 발표되고 내용체계나 영역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다가 후에 각 부분을 보완하여 발표되었다.

등학교 『한국사』교과서는 급하게 마련되어야 했고, 국정교과서로 전환을 발표하면서 졸속으로 편찬되기에 이르렀다.<sup>20)</sup>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2011 부분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전근대사 한국사영역의 고려시대 단원이 5단원이었던 것에 반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4단원으로 축소되어 발표되었다. 이것은 「한국사」의 국정교과서 전환에서 고대사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되지만, 고려사회 이해의 중심인 지배세력의 변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파행적이라 하겠다.

다음의 <표 6>에서 확인되듯이 고려시대에 대한 단원 축소는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다양한 문화상의 재해석을 통한 세계 시민양성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상당한 우려가 발생한다. 즉, 해양을 매개로 하는 문화교류와 각국의 역학관계를 설명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학습자들의 이해에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이번에 마련된 교육과정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sup>21)</sup>

<표 6> 2015 개정교육과정 『한국사』 내용체계

대주제	소주제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
	○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선사 문화
	○ 고조선의 발전과 여러 나라의 성장
고대 국가의 발전	○ 삼국의 성장과 가야
	○ 삼국 간의 경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
	○ 남북국의 성립과 발전
	○ 고대의 문화와 대외 교류
고려의 성립과 발전	○ 고려의 성립과 통치 체계의 정비
	○ 무신 정권의 성립과 농민·천민의 봉기

20) 2016년 11월 29일에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이 발표되었다. 학계의 우려대로 교과서 내용은 사실의 왜곡·편파·미화되었고, 청소년교육을 불모로 하는 정부의 정책 시행에 강한 의문과 항의가 지속되고 있다.

21)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서 논란이 되는 고대사와 근, 현대사 부분의 문제점은 제외하고 고려시대만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 대몽 항쟁과 반원 자주화의 노력
	○ 고려 문화와 대외 교류
조선의 성립과 발전	○ 조선의 통치 체제 정비
	○ 예란과 호란
	○ 정치 운영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동
	○ 사상과 문화의 변화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 개항과 개화 정책의 실시
	○ 근대 국가 수립 노력
	○ 일제의 침략과 국권 수호 운동의 전개
	○ 독도와 간도
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 191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와 3·1 운동
	○ 192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와 국내의 민족 운동
	○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식민 통치와 국내의 민족 운동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 대한민국 수립과 6·25 전쟁
	○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 경제 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
	○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
	○ 현대 세계의 변화

위의 내용체계를 이전의 2009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한 『한국사』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의 <표 7>과 같이 내용요소의 축소가 확인된다.

<표 7> 각 교육과정 별 내용체계 비교

교육과정	구분	영역	내용요소
2009 고등학교 『한국사』	근대 이전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과 변천	○고려의 건국과 동아시아의 정세 ○고려의 경제제도와 경제생활 ○고려의 신분제도와 사회모습 ○고려의 사상적 특징 ○고려의 대외관계와 고려사회의 개방성
2015 고등학교 『한국사』		고려의 성립과 발전	○고려의 성립과 통치 체제의 정비 ○무신 정권의 성립과 농민·천민의 봉기 ○대몽 항쟁과 반원 자주화의 노력 ○고려 문화와 대외 교류

위에서와 같이 고려시대의 내용체계에 구성된 내용요소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고려와 주변 국가들

간의 역학관계를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다. 반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역사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고려시대에 대한 서술 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일 정도로 빈약하다고 할 수 있겠다.

### Ⅲ.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고려-몽골 관련 서술

#### 1.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고려 단원 분량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는 모두 8종으로 2011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만들어졌다. 이 교과서는 2013년 1월부터 교육부의 엄격한 검정절차를 거쳐 그해 8월 30일 최종 합격 판정을 받고 2014년 3월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쓰이고 있다.<sup>22)</sup> 이들 교과서의 고려시대 단원에 대한 분량 배정은 전체의 11~13%인 41쪽-53쪽 이내에서 편성되고 있다. 2010 부분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으로 보면<sup>23)</sup> 절반에 가까운 지면이 삭감되어 전체 시대사에서 가장 분량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대사의 70여 쪽에 비해서도 적은 분량이지만, 이로 인한 서술상의 제약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배분하는 고려시대의 중단원 구성은 4~5단원으로 제약되는 실정이고, 정치-경제-사회-문화-대외관계의 구성과 지면상의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고려시대 475

22) 최근 정부에서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으로 중학교 『역사』교과서 및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2007년과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2011년 3월부터 사용한 교과서를 3년 만에 폐기하고, 2014년 3월부터 새로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사용해왔다. 그런데 2017년부터 새로운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면, 또다시 3년 만에 교과서를 폐기처분하게 된다. 이렇게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역사교과서를 3차례나 개편한다는 것은 세계 각국의 교육현장에서도 유례없는 것이며, 그만큼 교육과정 개편이 줄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3) 앞의 <표 4>의 내용에서와 같이 고려시대 2개의 단원이 하나로 편성되고, 조선시대 하나의 단원이 2개로 편성된 것만으로도 분량의 대폭적인 삭감이 있었다.

년의 역사를 단 40여 쪽에 편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용의 축약과 자료의 제시에 한계가 드러나는 현실이다.

더욱이 대외관계사 또는 문화교류사에 대한 서술도 제한적이어서 고려-몽골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내용도 매우 적게 서술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교과서 집필자의 고민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고려후기사의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현재에도 지역적으로 그 문화적 영향력이 남아있는 「여-몽교류사」에 대한 서술은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압축하여 서술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역사교재인 『역사부도』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여야만 하는 현실이지만 이 또한 선택이 쉽지 않다.

현재 사용되는 일부의 『한국사』교과서에 담긴 여몽교류사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이지도 않지만, 피해가 있었던 사실을 제외하여 미화된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서술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비해 학습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지만 중학교 『역사』(1)에서 다루고 있는 여몽교류사의 내용을 염두에 두더라도 고등학교 『한국사』의 여몽교류사 서술에 대한 즉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sup>24)</sup>

〈표 8〉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고려 단원 배정 비율

출판사	고려시대 단원명(영역 주제)	단원 배정 분량 *부록 제외	비율(%)
리베르	II.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과 변천	72쪽-117쪽(45쪽/385쪽)	11.7
	1. 고려의 건국과 정치 발전 2. 고려의 경제 3. 고려의 사회 4. 고려의 사상 5. 고려의 문물교류와 문화	109-117쪽(85-89쪽, 109-111쪽, 115-117쪽)	

24) 중학교 교과서는 『역사』(1)·(2)로 구성되어 있고, 분량은 각각 400여 쪽에 달한다. 『역사』(1)은 전근대사이며 『역사』(2)는 근현대사로 구성되어 있고, 동양사와 세계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가 우리나라 전체사를 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중학교의 교과서는 2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고등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절한 편이다. 고등학교에서는 『동아시아사』와 『세계사』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2016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가 기초교과에 편성됨으로 인한 교과서 분량의 제약을 반드시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미래엔	II.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과 변천	62쪽-103쪽(41쪽/364쪽)	11.3
	1. 고려의 성립과 정치 발전 2. 경제 정책과 경제 활동 3. 신분제도와 생활 모습 4. 다양한 사상과 귀족 문화의 발달	62-77쪽(75-77쪽) 78-83쪽(83쪽)	
비상교육	II.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과 변천	68쪽-113쪽(45쪽/403쪽)	11.2
	1. 고려의 건국과 동아시아의 정세 2. 고려의 경제제도와 산업 3. 고려의 신분제도와 사회 모습 4. 고려의 사상과 종교 5. 고려의 국제교류와 문화적 다양성	68-83쪽(80-81쪽)  108-111쪽(110-111쪽)	
교학사	II.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과 변천	54쪽-96쪽(42쪽/368쪽)	11.4
	1. 고려의 건국과 발전 2. 고려의 경제제도와 경제생활 3. 고려의 사회구조와 사회생활 4. 고려의 사상과 문화의 발달 5. 고려의 대외항쟁과 교류의 확대	   86-95쪽(88-90쪽, 94쪽)	
두산동아	II.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과 변천	56쪽-99쪽(43쪽/331쪽)	13.0
	1. 통일을 달성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다 2. 지배 세력이 교체되다 3. 경제 체도를 마련하다 4. 상공업과 대외 교역이 발달하다 5. 고려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6. 다양한 사상이 조화를 이루다 7. 고려, 개방으로 나라를 발전시키다	   92-99쪽(94-95쪽)	
금성출판사	2.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과 변천	86쪽-139쪽(53쪽/431쪽)	12.3
	고려, 연표로 미리보기 2-1. 고려의 건국과 발전 2-2. 고려의 경제정책과 산업의 발달 2-3. 고려의 신분구조와 사회생활 2-4. 고려의 종교와 사상 2-5. 고려의 대외교류와 문화의 발전	  128-136쪽(131쪽, 136쪽)	
지학사	II.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과 변천	74쪽-127쪽(53쪽/407쪽)	13.0
	1. 고려의 성립과 발전 2. 고려의 경제와 산업 3. 고려의 사회 제도 4. 고려의 사상과 종교 5. 고려의 대외 관계	74-85쪽(81-82쪽)  96-105쪽(105쪽) 106-115쪽(113쪽) 116-125쪽(120-123쪽)	
천재교육	II.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과 변천	62쪽-105쪽(43쪽/363쪽)	11.9
	1. 고려의 성립과 발전 2. 고려의 변화와 개혁 3. 고려의 경제와 사회 4. 고려의 사상과 문화	74-82쪽(77-80쪽)	

## 2.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麗-蒙 교류 서술 분석

『한국사』교과서에 구현된 고려-몽골 관련 내용에 대한 각 출판사의 서술 내용을 보면, 부분적인 차이는 보이지만 대체로 전체사에 같이 담아내는 방식이나 대외교류 분야에서 집중 서술하는 방식이다.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리베르 『한국사』교과서

리베르 교과서에서는 ‘고려와 몽골의 교류사’를 정치 분야에서 다루었는데, 고려 무신정권기를 시작으로 진행하며 대외관계·고려후기 정치 변동·고려의 문물교류와 문화 부분에서 각각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정치적인 해석으로 몽골 침입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최저 무신정권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대외관계의 서술에서는 몽골 침입에 대한 저항이라는 주제로 무신정권의 강화도 천도 이후 고려 곳곳에서 고려 조정과 주민들이 힘을 모아 저항하였음을 서술하였다. 지배층은 팔만대장경을 조판하기 위한 민중의 결집을 강조하였고, 고려 조정이 몽골과 강화 이후 삼별초의 저항은 지리적 요건과 민중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 고려후기 정치는 원의 내정 간섭을 중심에 두고 일본원정으로 인한 징발 피해를 서술하고, 정동행성·쌍성총관부·목마장·만호부 등으로 내정간섭 시행과정을 서술하였다. 이후 공민왕의 반원 자주 개혁을 추진하였다고 서술하였다.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 간섭기와 공민왕의 개혁 과정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고려와 이민족 대립 및 문물 교류를 설명하기 위하여 ‘대외관계사 한눈에 보기’를 두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몽골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주요 사건을 첨부하고 있다.

리베르 교과서는 첨부사진의 위치가 위 혹은 아래, 옆에 위치하여 본문과 겹치지 않게 구분해 놓았다. 그러나 정치사 중간에 고려의 각국에 대한 외교관계에 대한 파트를 따로 넣어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방해의 여지가 있었고, 부분적으로 정리하는 공간을 두어 이해를 높이려고 했지만 탐구활동과 같은 부가적인 내용이 적은 것이 아쉽다.



몽골의 침략에 맞서다

13세기 초 부류는 통일되고 서역이 강성해진 몽골은 거란을 수적하는 과정에서 고려와 처음 접촉한 뒤, 무리한 요구를 요구하였다. 이후 고려에 병탄했던 몽골 사신이 귀국 도중 살해되자, 이를 구실 삼아 대군을 보내 고려를 침략하였다(1231). 준비가 부족했던 고려는 시들러 강화를 맺은 뒤,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그 후로도 몽골은 고려에 여러 차례 침략했는데, 이에 맞서 노예, 부곡민 등 하층 민중을 적극 활용하였다. 처인성에서는 김윤부가 부곡민을 이끌고 몽골 장수 살어미를 사살하였다. 충주성에서는 노비가 주옥이 된 군대가 몽골군을 물리쳤으며, 편안산의 초목들이 대를 탈환에 나서기도 하였다.

몽골의 침략으로 황룡사 9층 목탑과 초조장성이 썩어 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국토가 황폐해졌으며 백성은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최씨 무신 정권은 백성을 보호하지 않은 채 수탈을 일삼았다. 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내로 몽골과 강화하려는 세력이 점차 득세했고, 마침내 최씨 정권이 무너지면서 관습이 끝이 났다.



6 무신의 집권과 대몽 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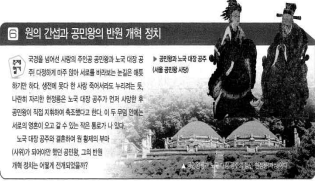
대몽군 이소응은 무신이라 할 수 없고 정도 약하였는데, 다른 몽수와 수백을 싸워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다, 문신 언하가 겁을 주었으니 나에게 이소응의 뱀을 주러갈지, 선물을 아예로 할이겠나. 이에 황제 모든 신원들이 손을 치르시 크세옵고... - 『고려사』

뱀을 잡았다는 수식명과 함께 뱀이 고을의 침략을 논해 선다. 결국 무신은 이소응의 수모를 제거한 사해 대변 정권을 수립하였다. 무신 집권 이후 고려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림 2) 미래엔 교과서 여몽관계 부분

원의 간섭과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에서는 몽골과 강화를 맺은 고려는 독립국의 지위를 얻었지만 자주성을 크게 잃을 것을 설명했다. 이후 쌍성총관부·동녕부·탐라총관부 등을 두고 내정간섭이 있었음을 기술하고, 원이 약해진 사이에 공민왕의 반원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원 간섭기의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 항목을 두어 공무역이 성행하고 사무역은 더 크게 발전한 모습이었음을 설명하면서도, 세계 각지를 정복한 몽골제국의 영향력 때문에 유럽과 서아시아와도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부가설명으로 세계 속의 고려, 고려 속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세계와 교류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단원정리에서는 시기별로 정치·경제를 정리해서 제시하고 지배층의 변화과정을 통해 대외관계와 문화 활동을 따로 정리해 두었고, 수행평가에서는 따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활동을 제시한 부분도 있었으나 고려와 몽골관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음도 특징이다.



6 원의 간섭과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

13세기 중엽, 한족의 반원으로 원이 정복 되었다. 이를 따라 공민왕은 즉위하여 반원 개혁을 추진하였다. 원이 거둔 승리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 공민왕은 즉위 후 원의 간섭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원의 간섭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원의 간섭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혁을 추진하였다.

원의 내정 간섭을 본다

몽골과 강화를 맺은 고려는 원의 부하국이 되어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자주성에 큰 손상을 입었다. 왕실의 호칭이 부하국의 지위에 맞춰 낮아졌고, 관공의 명칭도 원보다 낮은 포현으로 바뀌었다. 원은 다루기처라는 별칭을 두어 고려의 내정간섭을 의미했다. 금·은·인삼·해 등의 특산품과 고려의 처녀까지도 몽골로 요구하였다. 또한, '고려의 영토를 빼앗아 황주에 상송출판하. 서경에 동상궁, 제주도에 말마루를 설치하고 그 구름을 지배하였다.'

\*『고려사』에 기록된 공민왕의 반원개혁은 공민왕의 대에 이루어졌다. 반원개혁은 공민왕의 대에 이루어졌다. 반원개혁은 공민왕의 대에 이루어졌다.

6 공민왕, 반원 개혁 정책을 실시하다

14세기 중엽, 한족의 반원으로 원이 정복 되었다. 이를 따라 공민왕은 즉위하여 반원 개혁을 추진하였다. 원이 거둔 승리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 공민왕은 즉위 후 원의 간섭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원의 간섭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원의 간섭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혁을 추진하였다.



\*『고려사』에 기록된 공민왕의 반원개혁은 공민왕의 대에 이루어졌다. 반원개혁은 공민왕의 대에 이루어졌다. 반원개혁은 공민왕의 대에 이루어졌다.

미래엔 교과서는 리베르 교과서와 달리 중간 중간 정리하는 부분을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단원정리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중간에는 추가적인 설명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역사적 흐름을 계속 유지하며 기술하였으며 지배층과 피지배층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을 사각형으로만 넣지 않으려는 시도와 중간 중간 이해를 높이려는 삽화가 추가되어 있었다. 하지만 학생 스스로 질문하거나 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것이 아쉬운 편성이다.

### 3) 비상교육 『한국사』교과서

비상교육 교과서에서는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고려의 경제제도와 산업’, ‘고려 후기 문화 교류’로 나누어 고려와 몽골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서술 형태를 살펴보면, 최씨정권기에 대륙의 정세가 급변하고 몽골이 세력을 키워 고려를 침공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윽고 고려정부는 강화도로 천도하여 항전하였고, 백성들은 각지에서 일어나 저항하였지만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삶은 피폐해져 결국 몽골과 화의하게 되었고 끝내 반대한 삼별초가 끝까지 항전하였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집권층과 백성들이 저항 방식을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강화천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학습자들의 이해를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원의 내정 간섭기에는 고려에 여러 기구를 세우고 내정 간섭하고 고려왕을 부마로 삼았으며 여러 인적·물적 수탈을 진행하였음을 서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즉, 몽골인의 고려 진입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혼란에 대한 서술이 필요함에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약점이 보인다. 이후 공민왕의 자주성 회복을 위한 여러 개혁을 실시했음과 고려의 경제제도와 산업 고려 후기에 원나라와의 무역이 성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해상무역이 활발했음을 사진과 함께 서술하고 있다.

고려 후기 문화 교류에서는 원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여러 상품들 이외에도 유학자들과 승려들이 원나라에서 새로운 사상들을 받아들여 성리학의 이해와 불교 사상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조





서술하였다. 사진과 그림 여러 가지 부가적 설명과 탐구활동 등이 제공은 좋았으나, 반면에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본문 내용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 4)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몽골의 고려 침략 과정을 시기별로 구체화하여 기술하고 있다. ‘고려의 대외항쟁과 교류의 확대’를 두고 도입부에서 동북아시아의 형세도와 국가간 역학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몽골의 간섭이 이루어진 100년의 역사에 대한 주제를 열어둠으로써 대몽항쟁으로만 이해될 여지가 있는 고려 중·후기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몽항쟁 코너에서는 몽골항쟁의 주체를 정부보다는 백성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려와 몽골과의 교류를 세계 각국과 접할 수 있는 창구로 보았으며 고려가 외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서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4페이지를 할애하여 다양한 관계사를 정리하면서도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림 자료의 배치를 더하고 있다.

원과의 교류에 대한 서술 방식은 분석한 교과서가 모두 비슷했다. 원과 고려 간의 인적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나타난 생활 풍속의 변화, 문물 교류, 라마교와 성리학 등 학문의 전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각 교과서마다 강조했던 교류 내용은 다르게 서술하였는데, 몽골의 등장으로 인한 세계적 교역망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무엇을 수용하여 어떠한 문화를 만들었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 05 고려의 대외 항쟁과 교류의 확대

**주제 열기** 몽골군은 교역로를 따라 러시아와 유럽까지 원정하였다. 풍부한 경제력을 장악하기 위해 중국 말 진부를 짓발았고 몽골군이 지나는 곳마다 도시와 마을은 잿더미로 변하였다. 석하·금·이비스 왕조·러시아 공국들, 그리고 남송을 차례로 정벌하였다. 유라시아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에 이르는 몽골 제국에 의해 고려는 동서 문명의 교역에 동참하게 되었다. 고려는 40년 동안 몽골군과 어떻게 싸웠을까? 100년 동안 몽골의 간섭을 받으며 어떻게 신진 문물을 수용하였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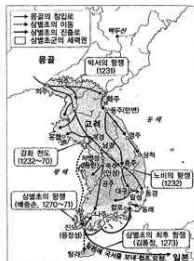


▲ 몽골의 원정으로 몽골의 근대는 기마술과 기동력이 뛰어나므로, 피정복민들의 기술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 학습 목표**
- 고려 시대에 전개된 대외 정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인적·물적 교류에 나타난 고려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파악할 수 있다.
  - 주체적으로 신진 문물을 수용하고 재창조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갖는다.

### 2 대몽 항쟁과 흥건적·왜구의 격퇴

#### 몽골의 침략



▲ 몽골의 침입과 항쟁

13세기 초 칭기즈 칸이 몽골족을 통일하고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는 정복 전쟁을 전개하여 서하와 금을 정복하였고, 동서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서쪽으로 원정을 나섰다. 이후 몽골의 간섭은 화북 지방을 차지하고 러시아와 유럽 지역까지 원정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몽골이 강성해져 금을 공격하자, 금의 지배를 받던 거란족이 쫓겨 고려로 들어왔다. 이에 고려는 몽골군과 연합하여 거란을 물리쳤으나, 이후 몽골이 무리한 조공을 강요하자 고려는 반발하였다.

몽골은 남송을 침략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고려에 대한 정벌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이 귀국길에 살해되자, 이를 구실로 몽골군이 고려에 쳐들어왔다(1231).

#### 강화 천도의 대몽 항쟁

▲ 대몽 항쟁기의 강화도 강화도는 일몰·일출의 차가 크며 해안에 해안역만 있어 방어하기가 유리하였다. 또한, 개성에서 가깝고 물산이 풍부하여 조세를 운송하기도 편리하여, 창기전을 벌이면서 장영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 개경 환도와 삼별초의 항쟁

몽골도 중국의 남송을 공략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저항하는 고려와 전쟁을 계속하기가 곤란하였다. 몽골과의 강화를 주장하던 세력과 고려 왕실은 대몽 항쟁을 주장하는 무신 정권을 무너뜨리고 몽골과 강화를 맺었다(1259).

당시 남송 정벌과 후계 문제로 곤경에 빠진 몽골의 정세를 이용하여, 고려는 강화 조약을 유리하게 이끌어냈다. 고려의 계도와 풍속을 존중한다는 협약을 마련한 결과, 국호와 왕실, 그리고 영토와 주민을 보존할 수 있었다.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에도 고려는 조세 징수 권한을 지키며 독자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였다.

한편,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지(1270),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도도 근거지를 옮겨 가며 대몽 항쟁을 계속하였다. 삼별초는 몽골의 지배에 반발하는 민중의 지지를 받아 경상도와 전라도 일부를 장악하였으나, 고려 정부군과 몽골군에 의해 몰락하였다(1273). 개경 환도 이후에 고려는 원의 정치적 간섭을 받았다.



▲ 항몽 순의비(제주 예물) 주립되어있는 고려의 군사적 용사도 남송과 원정을 공격하였고 제주도를 확보하였다. 삼별초의 남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덕천사건전 제주 열두비(제주 열두비)가 세워져 기념비로 건립하였다.

## 고려와 몽골의 강화 협상

### 몽골군의 전술과 무기

몽골 군대의 핵심 전술은 고도의 기동성에 있었다. 10만 명이 못되었던 몽골 기병은 한 명이 여러 필의 말을 기느렸으며 발땀없이 말 위에서 자비 하루에 160km를 이동하였다. 몽골의 전병은 말을 갈아타며 하루에 450km를 달릴 수 있었고, 몽골군은 1,000km 밖의 근대와 언덕하미 작전을 벌 수 있었다. 또한,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 위에서는 물론 도망가면서도 추격해 오는 적을 향해 정확히 화살을 쏠아낼 수 있었다. 몽골군이 사용하는 화약무기의 무기는 상대방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주었다.



▲ 몽골군의 공격전



▲ 승전 승강사 티베트족 법사 전에서 귀국하는 현강(서) 홍시(중)에 앞의 세우기 그의 여친을 모셔주기 위해 티베트 법사로 발원한 본사로 갈때였다. 전체 내용을 내외하는 이 여친이나, 당시 고려와 원의 외교 관계 교류를 엿볼 수 있다.

### 원과의 교류

고려는 몽골과 강화한 이후 100여 년간 원의 직립적인 간섭을 받았다. 원의 무마국 이 되었던 고려는 원과 인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지속되었다.

원으로부터 고려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양하였다. 고려의 황비가 되었던 원 황실의 공주들과 그를 수행하는 사신들, 다루(가죽)와 철동행성의 관리 및 그 가족, 그리고 몽골인, 중국인, 인도인, 라마교 승려, 위구르계 무슬림 등 많은 외국인이 고려에 와서 살게 되었다.

고려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원에 들어가 살았다. 고려의 황들은 어린 시절을 일정한 기간 원에서 보냈으며, 그를 수행하는 관리들도 수시로 원에 왕래하였다. 또한, 몽골과 전쟁 과정에서 생긴 포로와 고려에서 보낸 공녀 및 환관 등이 원에 머물렀고, 고려의 학자나 유학생도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원으로 들어갔다.

원을 통해 세계 시장과 연결되면서 문물 교류도 활발하였다. 양국 사이의 인적 교류가 많아지면서, 이들의 활동으로 학문·사상·종교·예술·과학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국제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림 4) 교학사 교과서 여몽항쟁 및 교류사 부분

### 5) 두산동아 『한국사』교과서

몽골의 침략 과정을 자세히 서술한 교학사 교과서와는 달리, 금성출판사는 한 줄, 두산동아는 몽골의 침략을 아예 서술하지 않고 바로 몽골과의 교류로 시작되고 있다. 즉, 고려시대 단원을 모두 7개로 구분하였고 각각은 고려시대를 정치·집권층·경제·상공업과 대외교역·생활·사상·교류(개방) 부분을 서술하고 있다. 때문에 몽골의 고려 침략의 역사적 사실의 기술보다는 대외 교류에 집중하고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적시하지 않음으로써 여몽교류사 자체에 대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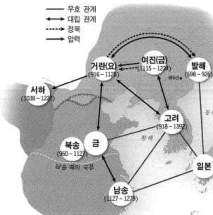
# 7 고려, 개방으로 나라를 발전시키다



고려에서 만든 이 거울에는 꽃을 옮긴 배가 피도를 타고 항해해 청해라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해상 교류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 고려의 활발한 대외 활동은 외국이 고려를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황금당전명 청동거울  
(숙정여자대학교 박물관)



10-12세기 동아시아의 외교관계

## 고려, 동아시아의 한 축을 차지하다

고려는 송과 거란(요), 여진(금) 등이 경쟁하는 다원적 동아시아 국제 관계 속에서 때로는 명분을, 때로는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정책을 펼쳤다.

고려가 건국되었을 때 동아시아에서는 거란과 5대 10국이 병립하고 있었다. 고려는 건국 초 중국 5대의 왕조와 관계를 맺고 교류하였으며, 송이 건국되자 바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때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 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과 함께 북진 정책에 걸림물이 되는 거란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송은 고려를 통해 거란과 여진을 견제하려는 군사적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고려는 거란의 침략을 받은 뒤 강화를 맺고, 송과 공식적인 관계를 끊었다. 하지만 상인 통을 통한 비공식적인 교류는 유지되고 있었다. 11세기 후반 거란의 세력이 약해지자 고려는 송과 국교를 재개하여 문물을 활발하게 수입하였다.



동아시아의 외교관계

## 몽골을 통하여 세계와 교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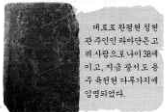
몽골 제국과 원은 동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 각지의 문화가 원에 들어와 융합되었다. 고려는 원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느 시대보다 대외 교류의 폭을 넓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고려의 문화는 더욱 개방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원의 공무를 왕빙으로 받아들임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귀화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왕빙은 대규모 수행원들과 함께 수시로 원을 다녀오며 교류에 영향을 끼쳤다. 송신왕은 연경에 만민당을 세워 고려와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하였다. 유학, 무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원을 왕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특히 교류 과정에서 수용한 성리학은 이후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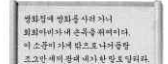
인적 교류와 함께 번방, 소주 등과 같은 몽골품이 유행하였다. 라마교가 전래되어 영향을 끼치고, 목화씨가 전해져 직포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원에서 만든 억방인 수시약과 농서인 '농상집요' 등도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화약 제조법의 개발은 왜구의 퇴치에 많은 이바지를 하였다.

고려의 음식, 풍습, 음악 등이 몽골에 전해져 일부 몽골 지배층 사이에 유행하였는데 이를 '고려양'이라 하였다. 고려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인 고려강도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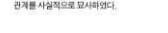
한민, 속오 가사에서 보이는 회화비와 같은 아라비아 인, 라마교의 전래와 관련된 티베트 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도 고려를 왕래하였다. 일부는 고려에 귀화하여 고의 관료가 되기도 하였다.



고려인 다루가치의 묘비 중국 관저주의 이름뿐 사찰인 회암사에는 묘비이다.



생원집 명퇴를 시켜 자니 회화비와 세 은국승 회화비이다. 이 소승이 자네 단고로 나귀를 팔고 고암에서 장사하며 사냥도 일하다.



생원집 명퇴를 시켜 자니 회화비와 세 은국승 회화비이다. 이 소승이 자네 단고로 나귀를 팔고 고암에서 장사하며 사냥도 일하다.

## 자료를 보는 역사

### 고려에서 몽골 문화가 유행하다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하며 "고려의 풍속을 고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원 감시관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인적·물적 교류가 일어나면서 많은 몽골 문화가 유행하였다. 총영장은 스스로 번방을 하고, 신라들에게도 따라 하게 하였다. 원의 공주가 제1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궁궐 앞에서는 많은 몽골식 용어가 사용되었다. 황과 왕이 몽 궁중의 최고 어른에게 붙이는 '마여', 새지와 새지인을 가리키는 '비누라', 왕의 음식인 '수라', 궁녀를 뜻하는 '장수리' 등은 본래 몽골의 궁중 용어였다.

유리가 흔히 쓰이는 '비슬이'의 나 '장사치', 속어인 '장야' 등에서 보이는 '새'는 몽골어에서 온 말로 일부나 직업을 나타낸다. 요즈음 서민인 속어로 '소주'도 몽골에서 전래된 것이다. 소주는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지배층만이 마실 수 있는 최고급 술이었다.



소숫고리 소숫고리는 소주를 측정할 때 쓰는 도구이다. 소주 제조법은 몽골군의 후분지인 개질, 양분, 제주 등에서도 발달하였다.

그림 5) 두산동아 교과서 여몽교류사 부분



금성출판사의 여몽교류사의 서술 방향은 전체적인 본문의 전개 내에서 분야사 서술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시대 단원을 5분야로 나누어 건국과 발전, 대외교류와 문화발전 분야에서 대몽항쟁과 교류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대몽항쟁과정에 대한 서술이 이후에 보이는 대외교류 분야 보다 소략한 느낌이 있으며, 원의 성립으로 인한 고려의 내정간섭기와 공민왕의 개혁정치 및 교역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고려의 지배층의 변화 과정과 대몽항쟁과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서술이어서 아쉬움이 있다. 물론 역사적 사실을 모두 기록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대몽항쟁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한 성실한 서술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한 페이지를 모두 할애하여 「역사의 창」 코너를 두고, 원과의 교류를 통한 세계관의 확장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7) 지학사 『한국사』교과서

지학사에서는 고려의 대몽항쟁에 대하여 비교적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고려후기의 대외관계를 전체사의 입장에서 서술하면서도 몽골의 고려 침략과정이나 피해를 입힌 내용에 대한 기술 없이 강화도 항쟁을 소개하고 있다. 「역사 더하기」코너에서 삼별초의 항쟁을 따로 다루었을 뿐 대몽항쟁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지 않고 있는 아쉬움을 보여준다.


그리고 고려의 일본 원정에 동원된 사실을 소개하면서 원의 내정간섭을 설명할 뿐이다. 대몽항쟁과 피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몽골과의 전쟁이 단순한 외교관계로 이해될 소지가 있어서 염려된다. 특히, 원과의 교류를 소개하면서 고려 사회를 바꾸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음은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공민왕의 사회·문화 개혁정책을 통해 몽골풍의 문화상이 해소되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몽교류를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시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 간의 교류가 상호 영향을 주었음은 틀림없겠으나 호혜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서술의 중립성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 2 고려 후기의 대외 관계

김유주는 고종 때 사관으로 임명이 주어 백현원에 있었다. 몽골 군대가 다다르자, 유주가 처인성으로 피난하였는데, 몽고의 장수 삼리다가 상을 차에 유주가 이를 사살하였다.

- 『고려사』

● 몽골이 침입하였을 때 고려는 어떻게 대처하였을까?



○ 차인성 전투 기록화(전쟁 기념관)



### ! 몽골과의 전쟁, 도읍을 옮겨 항전하다

13세기 초 몽골족은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금의 수도인 베이징을 비롯하여 화북 일대를 점령하였다. 그 후 몽골군은 서역으로 향하여 8년 만에 유럽의 폴란드와 러시아, 인도 북부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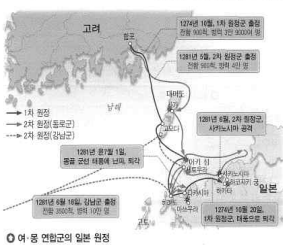
이 무렵 거란족 일부가 몽골에 쫓겨 고려에 침입하였는데, 고려는 몽골과 연합하여 강동성에 서 거란족을 몰아냈다. 이를 계기로 고려는 몽골과 사신을 왕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몽골이 고려에 많은 공물을 요구하여 양국 사이에 갈등이 커져 갔다.

### ! 고려, 일본 원정에 동원되다

고려를 복속시킨 원은 일본 가마쿠라 막부에 항복을 요구하였으나, 막부가 이를 거절하자 일본 원정을 추진하였다. 삼별초의 항쟁을 진압한 여·몽 연합군은 일본 원정에 필요한 전함을 건조하고 수군을 동원하였다.


여·몽 연합군은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정벌하였으나, 그때마다 태풍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후퇴하였다. 여·몽 연합군의 일본 원정은 실패로 끝났으나, 원이 전쟁을 위해 설치한 **정동행성**은 계속 남아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일본은 여·몽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과도한 군비 지출 등으로 가마쿠라 막부가 붕괴되었다.




### 역사 더하기

#### 끝까지 몽골에 저항한 삼별초



○ 삼별초의 항쟁



○ 고려삼정왕삼별초(도교 대학교 사료 편찬소)  
1271년 진도에 있던 삼별초가 보낸 외교 문서를 일본이 3년 전에 원종이 보낸 국서와 비교하여 이해가 안 되거나 불확실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몽골이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과 연대의 필요성, 군사적 지원 요청을 담고 있다.

경화도에서 봉기한 삼별초는 왕족인 송하후 온을 왕으로 삼았다. 이들은 권료와 가족을 인질로 삼고 진도로 떠났다. 진도의 용장산성에 자리 잡은 이들은 강력한 수군 조직을 바탕으로 서남해안 도서 지방을 정벌하여 정부의 조세 수송로를 차단하였다. 여·몽 연합군이 진도를 함락하자 삼별초는 김통정의 지휘하에 제주도의 함두리성으로 옮겨 항쟁하다가 1273년 결국 패하였다.

그림 7) 지학사 교과서 대몽항쟁 부분



원과의 교류, 고려 사회를 바꾸다

고려와 원의 전쟁이 끝난 후 원의 정치적 간섭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두 나라 사이에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문물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많은 고려인이 전쟁 포로나 공녀로 원에 끌려갔는데, 공녀 중에는 원 황제나 고위 관리의 후처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스스로 원으로 넘어가 그곳에 귀화하여 정착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몽골 인, 중국인, 색목인 등 다양한 민족이 고려와 원 사이를 오고 가는 가운데 고려 개경에는 회화인이 운영하는 상점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적 교류는 고려와 원의 풍습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두 나라는 머리 모양이나, 옷, 음식, 도자기, 언어 등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고려에 전해진 몽골의 풍습을 **몽골풍**이라 하고 원에서 고려 풍습을 따르는 것을 **고려양**이라 하였다.

원에서 새로운 문물을 들여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암은 농업서인 『농상집요』를 소개하여 농업 기술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문익점은 원에서 목화를 들여와 의생활을 혁신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 소주고리  
소주를 내리는 데 쓰는 재래식 종류이다. 소주는 원에서 전래되었다.

**역사 더 알아보기**      **색목인으로 고려에 부리를 내린 설손**

<p>설손은 원에 살았던 위구르 인으로, 고조부가 원에 귀화한 후 대대로 벼슬을 하였다. 설손은 원 순제 때 진사시에 합격하여 황태자에게 경전을 가르쳤는데, 이때 원에 머물던 공민왕과 인연을 맺었다. 그 후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피해 고려에 들어와 귀화하였다. 그는 공민왕에게 후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고, 시에도 능하였다.</p>	<p>설손의 아들 설장수는 몽골 어, 중국어에 능통하였으며 과거를 통하여 관직에 진출한 후 고려 조정의 외교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그는 대명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설장수는 고려 말 대표적 사대부로 이름을 날렸으며, 왜구 격퇴문을 올리고 공양왕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p>
----------------------------------------------------------------------------------------------------------------------------------------------------------------------------------------------	----------------------------------------------------------------------------------------------------------------------------------------------------------------------------

그림 8) 지학사 교과서 여몽교류 부분

8) 천재교육 『한국사』교과서


천재교육은 고려시대의 단원 분류를 4개로 구성하고 있다. 4개 단원 중 대몽항쟁 및 교류사부분은 1단원에 배치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학습자의 대몽항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제 부분에 연표를 설정하였다. 때문에 서술될 내용 전체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제한된 면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몽골과의 전쟁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원의 내정 간섭과 일본 원정을 다루면서도 인적 물적 교류를 제시하여 전체적인 서술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자료읽기」 코너에서 친원세력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고려 후기 사회의 변화상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한 사료의 해석을 벗어나 사회상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생각 넓히기」 코너 또한 사상과 종교 및 인적 교류를 통해 고려의 다양한 모습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주제 2 몽골의 침략과 격투

1231 몽골이 이 땅에  
1232 4월의 5일  
1236 몽골의 침략-연립  
1270 개항로 개척

몽골 부족들을 통합하여 국가를 세우고 최초의 인간은 강대한  
기여물을 알래워 정복 활동을 벌였다. 이후 몽골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지닌 나라가 되었다.

▶ 몽골 국가명  
▶ 고려는 몽골의 침략에 맞서 어떻게 싸웠을까?



**몽골과의 전쟁**

13세기 초 유목 생활을 하던 몽골족이 북쪽 단막에서 벗어나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 이후 몽골은 금을 공격하였고, 금의 지배 아래 있던 저란족의 일부가 몽골군에게 쫓겨 고려에 들어왔다.

고려는 몽골군과 연합하여 거란족을 물리치고, 몽골과 수교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고려를 방문한 몽골 사신이 귀국길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몽골은 이를 구실로 고려를 침략하였다(1231).

몽골의 1차 침략 당시 백제가 귀주성에서 몽골군에 저항하여 이를 물리쳤으며, 2차 침략 때에는 김유생의 처인 복귀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 처인성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충주성의 노비 등이 몽골군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최씨 정권은 수도를 강희로



A. 세실 인제민 국가회 김 유생의 처인 전투는 몽골 사 인의 침략에 사살된 몽골군을 물리쳤다.

구분	연대	연도	내용		
몽골의 침략	1231	1232	1236	1270	1279
몽골의 침략	1231	1232	1236	1270	1279
몽골의 침략	1231	1232	1236	1270	1279
몽골의 침략	1231	1232	1236	1270	1279

A. 세실 인제민 국가회 김 유생의 처인 전투는 몽골 사 인의 침략에 사살된 몽골군을 물리쳤다.

**원의 건립**

몽골은 원을 세우고, 수도를 토포타이징으로 옮겼다. 고려는 몽골과의 오랜 항전 끝에 국가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원의 간섭을 피할 수는 없었다. 고려는 원의 즉위후 원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였고, 원은 원의 공주와 결혼하였으며, 왕자는 원에서 성장해야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려는 원실의 호칭과 관제도 제후국에 맞게 새로 맞추어야 하였다. 원은 고려의 영토 중 평안 북부 지역에는 행정총관부, 서경에는 동녕부, 제주에는 탈라총관부를 두어 직접 통치하였다. 아울러 일본 원정을 위한 문지과 군인 등을 고려에 요구하였다. 원은 원정을 실패하였으나, 원정을 위해 설치되었던 정동행성을 그대로 두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 삼았다.

또한, 원은 고려에 공녀와 관관을 비롯한 금, 은, 면, 인삼, 매 등을 요구하였다. 이 때문에 고려 정부의 부담이 늘고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고려의 정치도 원의 압력과 친원 세력의 팽배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원 간섭기 고려에는 몽골, 중국, 위구르 출신의 다양한 사람들이 왔으며, 많은 고려인이 유학 공부, 불교 교유, 이주 등의 이유로 원으로 건너갔다. 이러한 가운데 고려에 몽골식 문법과 화장, 음식 문화가 전해졌으며, 원에도 고려의 풍속이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양국의 교류는 고려 사회의 다양성을 확대시키는 계기




A. 세실 인제민 국가회 김 유생의 처인 전투는 몽골 사 인의 침략에 사살된 몽골군을 물리쳤다.

**몽골의 침략**

고려의 영토 폭주는 이어져왔지만, 몽골은 1231년 4월 5일, 몽골이 평안도를 침략하여, 우리 고려에서는 포로로 잡힌 귀족을 빼앗아 노획하여 노획하여 노획하였다. 몽골은 1231년 4월 5일, 몽골이 평안도를 침략하여, 우리 고려에서는 포로로 잡힌 귀족을 빼앗아 노획하여 노획하였다. 몽골은 1231년 4월 5일, 몽골이 평안도를 침략하여, 우리 고려에서는 포로로 잡힌 귀족을 빼앗아 노획하여 노획하였다.

178 : 조선시대 사신들의 일화



**조선의 건립**

유수의 아버지 유정삼은 무학에게서 강학으로서 사학을 당하였다. 유수의 아버지는 유정삼은 무학에게서 강학으로서 사학을 당하였다. 유수의 아버지는 유정삼은 무학에게서 강학으로서 사학을 당하였다.

**유수의 아버지 유정삼은 무학에게서 강학으로서 사학을 당하였다.**

유수의 아버지는 유정삼은 무학에게서 강학으로서 사학을 당하였다. 유수의 아버지는 유정삼은 무학에게서 강학으로서 사학을 당하였다.

유수의 아버지는 유정삼은 무학에게서 강학으로서 사학을 당하였다. 유수의 아버지는 유정삼은 무학에게서 강학으로서 사학을 당하였다.

유수의 아버지는 유정삼은 무학에게서 강학으로서 사학을 당하였다. 유수의 아버지는 유정삼은 무학에게서 강학으로서 사학을 당하였다.




그림 9) 천재교육 교과서 여몽관계 부분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는 고려와 원의 관계를 대몽항쟁과 여몽교류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각 교과서들은 집필진의 서술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다 강조할 내용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몽골과의 강화를 통해 고려인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외부 문물을 받아들여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고 더욱 개방적인 사회가 형성되었다는 내용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읽힌다. 하지만 일부 교과서는 고려와 원이 관계 형성에서 몽골의 침략과 항쟁, 강화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지 않았으며, 원 간섭기 내용을 따로 서술하지 않고 바로 조선 건국으로 전환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담당 교사의 보완적인 설명이 없게 되면 고려와 원이 상당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에게 여몽교류 초기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교과서에서 내용상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생략할 수도 있다. 많은 학생들이 분량 과다로 지루해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과감한 인과관계의 생략은 해당 교과서를 보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관점만을 심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즉, 고려와 몽골이 외교관계가 성립되기 전후로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고 그로 인한 양국 간의 사회상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결과의 서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몽골과 대외관계가 단지 ‘항쟁’ 보다 ‘교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양국은 외교적으로 큰 마찰 없이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모두 교과서에 담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교과서들은 활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목표점이 다르고 이에 따른 서술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 IV. 맺음말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8종을 대상으로 고려와 몽골 및 원의 외교 및 전쟁을 포함한 교류 상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교과서 편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집필지침은 서술의 중립성을 해치지만, 각각의 검정교과서는 집필지침의 해석 여하에 따라 서술 방향과 구성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교과서마다 여몽교류사에 대한 서술은 주로 대몽항쟁 과정을 중요시 하거나, 교류사를 중심에 두는 등의 구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역사교육은 한국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찾아내고 이를 새롭게 해석하여 한국의 정체성을 조망하는 데 있다. 그런데 교과서 서술에서 호혜적인 상호교류에 치중하여 양국 간의 긍정적 부분만을 서술하는 것은 고려시대 특히, 대몽항쟁을 이해하는 데 추가적인 학습이 요청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특히, 2009 개정교육과정이란 개방적 교육관을 보여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중심에 두는 서술이 늘어나는 경향도 분명하다. 그러다 보니 외세와의 항쟁이나 전쟁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서술 보다는 상호 문화적 교류를 보다 더 중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검정교과서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역사교과서에서 확인되는 여몽교류사는 호혜 교류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나 문화적 변용에 대해서는 소략하거나 아예 서술하지 않은 교과서도 있었다.

이처럼 상호간의 평등한 문화교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는 대외교류사 서술은 고대로부터 성장한 여러 국가의 발전상과 정체성의 이해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즉, 전쟁이나 외세와의 항쟁으로 발생하는 문화유산 등의 피해를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해나 문화재 학습에 대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외교류를 포함하는 전체사에 대한 이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반영되지 않는 고려와 몽골 간의 교류사는 일방적일 가능성이 높기도 하지만, 대몽항쟁 과정에서 파괴된 사회

문화에 대한 연구를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한 교류사의 비판적 학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몽항쟁의 전 과정에 대한 서술은 지금보다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에서의 고려시대 서술 비중을 높여야 한다. 교과서의 분량이 다소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미 전개되었던 한국사의 역사적 교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1. 저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8종, 2013년 8월 30일 교육부 김정본.  
김기선, 『한몽 문화교류사』, 민속원, 2008.

### 2. 연구논문

- 강봉룡, 「국사교과서의 해양관련 인물; 고려시대의 해양문화와 국사교과서 서술」, 『한국사학보』 16, 고려사학회, 2004.
- 김아네스, 「고려시대 북방민족과의 전쟁사론」, 『남도문화연구』 26, 순천대남도문화연구소, 2014.
- 김영숙, 「2011년판 개정 『한국사』교과서의 분석 - 전근대사 단원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제19권 1호,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12.
- 김현라, 「고려 忠烈王代의麗·元關係의 형성과 그 특징」, 『지역과 역사』 24, 부경역사연구소, 2009.
- 김형준, 「남북한 중학교 교과서의 고려시대 대외항쟁사 서술체제와 내용분석」, 『역사와 교육』 18, 역사와교육학회, 2014.
- 박성래, 「역사 속 과학인물-몽골지배 원나라의 천문학자 ‘곽수경(1231~1316년)」, 『과학과 기술』 v.32 no.8, 1999.
- 오일환, 「한국과 몽골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학습방안 구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12 no.3, 한국콘텐츠학회, 2012.
- 전영준, 「다문화교육 관점에서 현행 중학교 9종 역사교과서 고려시대 단원 분석 -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대구사학』 112, 대구사학회, 2013.
- Urjinkhundev, Perenlei(주한몽골대사), 「몽골 복식에 대해서」, 한국복식학회 2005년도 컨퍼런스 프로시딩(2005 Oct. 22), 2005.
- 최해울, 「영상물 제작을 위반 고증 의상 디자인 연구-13~14세기의 고려양과 몽골풍의 귀부녀 복식을 중심으로」, 『服飾』 v.57 no.1, 2007.
- 최해울·남윤자·조우현, 「몽골여자복식의 변천 및 요인에 관한 연구 -몽골·원 제국기 복식을 중심으로」, 『服飾』 v.52 no.4, 2002.

## Abstract

## An Analysis on the Description of the History of Exchanges between Goryeo and Mongolia in the 2009 Curriculum and High School Textbooks 『Korean History』

Jeon, Young-Joon\*

The description by authorized textbooks currently used in middle and high schools reflects actively the result of the coexistence of various cultures away from the existing perspective of nationalism. In particular, these textbooks state that the Goryeo dynasty developed through mutual exchang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the Song dynasty, the Kitan, the Jurchen, the Yuan dynasty and Japan throughout the period.

This indicates the changes in the perspective on multicultural and global citizen education and is well reflected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Korea in the history of the world’ of the revised 7th curriculum in 2007. The keynote was maintained in the revised 2009 curriculum (the general) and the revised 2011 curriculum (the particular).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guidelines on textbook writing still insist on the description from the nationalist views and show unconsciously the perception of “the excellent culture of the Song dynasty and the low culture of northern peoples.”

---

\* Prof.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o overcome thi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flect the description that grasps the goals of the history education according to the curriculum and to ensure the neutrality of the description. Besides,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lessons suggested by historical facts in Korean history that was already developed, even if the amount of textbooks increases to some extent.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clearly point out that leading the fixed history education without revising the writing guideline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hinders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fact that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Goryeo dynasty were formed through active exchange with many neighboring countries.

Key Words : History education, The revised 2009 curriculum, High School Textbooks 『Korean History』, Neutrality of the description, History of Exchanges between Goryeo and Mongolia.

교신 : 전영준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제주대학교 사학과  
(E-mail : inhistory@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6. 12. 28.

심사완료일 2016. 02. 06.

게재확정일 2017. 02. 07.